

안나 장학회



(2024년 8월 17일, 안나 장학금 수여식, CST 신입생 이해인과 이경식 부총장 참석)

1983년, 로스앤젤레스 영락교회에서 열린 여선교회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, 20명 이상의 여성 집사들이 안나선교회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. 이 장학회는 로스앤젤레스 영락교회의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, 한인 교회 공동체 내 최초의 독립적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.

2024년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안나장학재단은, 처음에는 유능하고 준비된 한인 2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이 장학 사역에 참여한 여성 집사들은 자신의 작은 저축을 모아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,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.

41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사랑의 장학 사역은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되어 왔으며, 그 사역의 범위는 로스앤젤레스를 넘어 북한, 한국, 중국, 멕시코 등지로 확장되었습니다. 이 장학금은 프린스턴 신학교, 풀러 신학교, 미국 장로교 신학교, 연변과학기술대학교, 평양과학기술대학교, 포항 한동대학교 등 여러 기관에 전달되어왔으며, 2024년에는 처음으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.

2024년 4월, 정정숙 회장, 전 회장 정화순, 전 회장 박인숙은 이경식 부총장의 안내를 받아 새롭게 이전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방문하였습니다. 이 방문을 통해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인 학생 세 명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.



(2024년 4월, 안나 장학재단 임원진의 CST 방문:
정정숙 회장, 박인숙 및 정화순 전임 회장, 이경식 부총장과 함께)